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

고 선 주*(덕성여자대학교 시간강사), 이 현 아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최 진 아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유 우 영 (가정생활개선진흥회 연구원)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낭만적 사랑에 대한 강조와 결혼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결혼지속기간이 짧은 부부의 이혼율 증가라는 현실을 통해서 분명히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해 부부취업가족이 증가하는 현실은 관념적인 부부관계에 초점을 둔 교육보다는 취업부부를 가정하면서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과 생활설계에 초점을 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와 기존의 프로그램을 검토한 후 실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기혼부부와 앞으로 결혼할 예정인 미혼을 상대로 예비부부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계하였다.

요구도 조사를 위한 대상은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어, 미혼은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로, 기혼은 결혼한지 3년이 넘지 않은 신혼기 맞벌이부부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의 크기는 미혼 400명, 기혼 200쌍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나, 그중 미혼 300명, 기혼 176쌍이 응답하여, 이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요구도가 4점 이상(5점척도 기준)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부부간의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 등 실질적인 영역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었다.

요구도 조사를 기반으로 전체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 주제를 1세션: 결혼의 의미와 기대, 2세션: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3세션: 성과 사랑 4세션: 생활설계로 구성하였으며 각 세션의 소요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씩이다.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부부의 모집은 주로 결혼준비회사의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결혼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의향이 있는 예비부부 9쌍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교육은 예비부부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토요일에 2세션씩 연속으로 진행하여 총 4세션이 2002년 9월 20일과 9월 27일에 걸쳐 총 2주 동안 9쌍, 18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2주 연속 4세션을 전부 출석한 6 쌍, 12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이루어진 평가 중에서 단 1명만이 3점인 '그저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1명은 전원이 '만족하는 편이다'에 응답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이에게 권하겠는가는 질문에 100% 전원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실제적인 갈등해결기법이나 생활설계에 대한 호응이 높게 나타나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인다.